'월인석보, 훈민정음 읽기'

법련사 불일인문학 강좌

조계종 법련사(주지 진경)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으로 읽다'를 주제로 한 제4차 불일인문학 강좌를 오는 4월 6일부터 개강한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개정 · 합편한 책이다. 편찬은 세종 말엽에서 세조 초엽까지 13년동안 이뤄졌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 나온 불경 언해서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의 결정판이자. 당시의 글자나 말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한국어문학 역사에서도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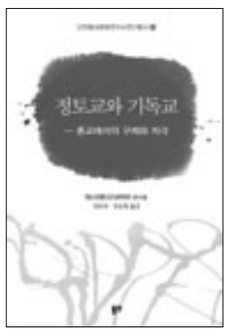
불일인문학 강좌에서는 〈월인석보〉의 내용과 어문학적 위치를 조명한다. 강의는 훈민정음 불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진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새 봄을 맞아 시작되는 불일인문학 강좌 수강료는 3개월 과정에 15만원이며, 4월 6일 개강 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정토교 구 제 · 기독교 구 원 같음과 다름 사이서 길을 찾다

譯書〈정토교와 기독교〉 서평회 열려



대승불교의 정토교는 아미타불의 구제 원력을 믿고, 염불을 통해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신앙을 주축으로 한다. 기독교는 신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구원론을 바탕에 둔다. 무엇인가에 의해 구제 · 구원된다는 점은 정토교와 기독교는 다른 듯 닮았다.

최근 발간된 〈정토교와 기독교〉는 두 종교의 구제 · 구원 개념을 비교 분석한 책이다. 일본 난잔종교문화연구소가 1989년 개최한 심포지엄의 전 기록을 정리 · 수록한 이 책은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김승철 난잔종교문화연구소장이 공동 번역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일본 정토종학자들 3인이 호넨과 신란 스님의 구제에 대해 짚어냈고, 일본 신학자들은 기독교에서 구원의 의미를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정토교와 기독교의 구제 · 구원의 관계점을 찾았다.

28년 전 다뤄진 주제지만, 주제와 내용은 어색하지 않다. 도리어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더불어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발간에 맞춰 역자(譯者)들은 서평회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일반 학계에서 중요한 학술연구서가 나온 경우 종종 서평회가 열리지만, 불교계에서 학술서 서평회가 열리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3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서평회에서는 김호성 교수가 정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총평과 서평위원 안경식 부산대 교수,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가 서평을 진행했다. 또한 공역자인 김승철 소장이 최종 인사말을 했다.

이날 김호성 교수는 불교를 죽음을 이야기하는 불교 '사생문'과 생을 이야기하는 불교 '유생문'으로 나누고, '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왕생을 기원하는 정토교는 '사생문'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3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정토교와 기독교〉 서평회에서 서평위원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하고 있다.

日난잔종교硏 세미나 · 토론
김호성 · 김승철 교수 공역해
관련 학자 참여, 서평 진행

구제 · 구원신앙, 현대적 해석
타력 아닌 자력임을 역설해

죽음 이후 왕생과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토교는 타력신앙에 가깝지만, 〈정토교와 기독교〉에서의 정토학자들은 신란과 호넨의 구제론을 분석하며 정토교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생문'의 불교인 정토교의 아킬레스건은 현생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책에서 정토학자들은 신란과 호넨을 통해 정토종문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력신앙 통한 깨침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란이 말한 염불의 공덕인 '상행대비(常行大悲, 항상 자비심을 갖는다)' 등은 타력의 정토신앙을 보완한다"며 "호넨이 강조한 칭명염불도 사후와 함께 현실 안에서 아미타불의 구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평위원으로 참여한 안경식 교수도 일본 정토학자들이 신란과 호넨을 통해 정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안 교수는 "3명의 정토학자들은 구제 왕생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구제가 이뤄짐에 집중하고 있다"이라며 "기독교 신학자들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다"고 말했다.

이찬수 교수는 두 종교간의 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교수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양 종교 전통의 독특성과 상통성을 분명히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양성 안에서, 다양성을 넘어, 다양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이끌어낼 때 두 종교의 보편성은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교육 실시

불교중앙박물관, 20~21일

성보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자들에게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이해와 행정 · 정책 동향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실시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3월 20~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 관리자 유물관리 교육'을 개최했다.

올해로 4년째 시행되는 교육은 문화재 소장자 및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 시작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前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성보문화재 이해'를 비롯해 △성보문화재의 특성과 보존관리 방안(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건축설계지침과 사례(조홍석 HI정책연구원 역사문화연구센터장) △건축문화재 보존 사례와 관리방법(김봉건 서울대 건축학과 객원교수)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 방향 (김석희 문화재청 근대문화과 사무관)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원효, 韓인문학에 어떤 영향 미쳤나

동국대 세계불교연구소 3월 18일 6차 학술대회

원효 생애 · 사상 총체 분석
文 · 史 · 哲 등 전반영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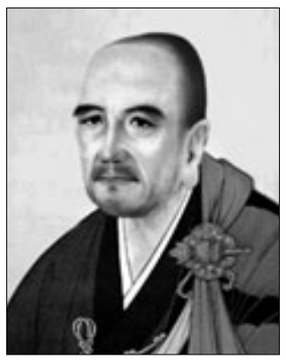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원효 스님〈사진〉의 사상이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세계불교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18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원효가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학 · 사학 · 철학 · 종교 ·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원효의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인식돼 왔는지를 분석했다.

사학 분야 발표자로 나선 전준모(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씨는 현대의 원효 스님 연구가 화쟁 · 회통 이론가의 면모에만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대승보살도 실천가로서의 역할도 조명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전 씨는 "원효는 전쟁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교화했고, 아미타정토신앙으로 그들을 위로했다"며 "그의 생전 행보는 화쟁 · 회통 이론가보다 대승보살도 실천가로서의 면모가 더 강했다"고 설명했다.



원효 스님의 삶과 사상은 고려부터 근대까지 전해지며, 화쟁 이론가와 보살도 실천가로 분화돼 변주 · 활용됐다. 실제 고려 종파 대립이 심할 때는 화쟁이,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보살도 실천의 모습이 부각된다. 일제강점기 최남선은 한국불교의 차별화를 위해 '통불교' 개념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는 위인으로 원효를 내세운다.

전 씨는 "최남선의 통불교론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원효의 화쟁 이론가적 면모가 부각시킨 사례"라면서 "원효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화쟁 이론가와 대승보살도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두루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효구 충북대 교수는 김선우의 〈발원〉, 이광수의 〈원효대사〉, 한승원의 〈원효〉 등의 소설을 통해 한국문학 내 원효 스님의 위치를 조명했다.

정 교수는 "원효는 신라인이면서도 근대와 후기 근대인의 비전을 보여줬으며, 이를 넘어선 사람으로 작가들에게 읽혔다"며 "원효는 불교의 세계를 통해 근대 · 후기 근대, 그 이후까지 준비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원효의 삼세육추설과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비교한 고영섭 세계불교학연구소장은 "원효 불학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삼세육추설과 이황의 사단칠정론이 만나는 접점과 통로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한 자유롭고 주체적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들은 인간과 세계의 심연 · 본질을 사유하며 부처와 중생, 군자와 소인이 만나는 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종교에 미친 영향(송현주 순천향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예술에 미친 영향(최엽 한국외대 외래교수)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 상 · 하부구조 부조화 해소해야"

박태원 교수, 3월 향상포럼서 주장

'한국불교 재구성' 주제놓고 다양한 분야서 1년 간 논의

현재 한국불교의 사원공동체는 전통시스템과 현실 사회 간의 부조화가 심각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3월 17일 열린 향상포럼 월례 발표에서 '한국불교 재건을 위한 사원공동체 시스템의 재구성'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원공동체 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국불교가 변혁의 시기를 맞았다"고 천명한 박 교수는 한국불교가 수많은 내부고발과 비판적 성찰을 수용해야 하며, 변화 요소 중 하나로 '사원공동체 시스템'을 꼽았다.

박 교수는 현재 사원공동체는 전통적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으나 외부 환경은 지식사회 · 민주주의 · 인권평등 등 유래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전통적 운영 방식을 사원공동체의 상부구조로 외부 환경을 하부구조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시스템을 구성할 당시의 하부구조와 현재의 하부구조는 상이하기 때문에 부조화와 파열음이 날 수 밖에 없고, 이를 같은 구조적 부조화와 파열음을 극복하는 게 한국불교의 과제라고 봤다.

박 교수는 "상부구조인 사원공동체 전통시스템은 하부구조인 현대사회의 특징들을 능동적으로 소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사원공동체는 서로를 향상시키는 장으로 나아가는 게 내용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원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계 · 정 · 혜 삼학의 수행 영역과 생활 범주 영역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향상포럼은 3월 월례 발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재구성'이라는 대주제로 매월 월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디지털시대, 불교미디어 전략(류지호)', 5월에는 '교육 · 인문 공간으로서의 사찰(법인 스님)' 등의 발표가 이뤄지며,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의 역할론 · 포교방법론 · 법계직무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39주년 기념
제11회 탄신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서 불교사상 정립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 진각국사 · 혜심 탄신 838주년을 맞아 제 10회 진각국사 · 혜심 추모 다례제 및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순군민회관에서 봉행되는 이번 행사는 진각국사 ·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순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와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화순군민회관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 협 찬 : 화순초교 37회 동문. 광주 동구 해원정사 추모원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전화 061)372-0108 / H·P 010-2971-4646